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

VOLUME 293 | NOVEMBER 2021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2021년 11월호 / 통권 293호

발행일 2021년 11월 1일

발행인 염수정

편집장 노우식

편집 및 디자인 직장사목팀 편집부

인쇄 상경커뮤니케이션즈

발행처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 별관 5층

전화 02-727-2078 팩스 02-753-3792 홈페이지 www.catholicworkers.or.kr

Copyright 2021©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에 실린 글, 그림 및 사진 등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VOLUME 293 | NOVEMBER 2021

Editor's Note	4
특집	6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땀의 증거자
함께 읽는 성경	12 믿는다는 것은?
전례와 생활	16 미사 바로 알기 (1) - 새 로마 미사 경본 20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News & Views	23 후원방법 및 소식
교회의 가르침	24 「찬미받으소서」를 소개합니다 28 기도 학교
신앙과 삶	34 주님의 뜻!
듣다 읽다 보다	38 고전 음악을 듣다 44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50 신앙인의 눈으로 읽는 고전 문학 54 진료실에서 바라보는 세상이야기 58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



THE COVER

원주교구 배론성지 內 최양업 신부님 묘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2021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아, 한국 교회의 귀중한 유산인 순교 영성, 곧 순교자들이 온 삶을 바쳐 지킨 신앙을 삶의 중심 자리에 굳건히 세우고, 신앙이 주는 참기쁨을 나누는 초대의 잔치로써, 2020년 11월 29일(대림 제1주일)부터 2021년 11월 27일(대림 제1주일 전날)까지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희년의 주제로 김대건 신부님께서 옥중 취조 때 받으셨던 질문인 “당신이 천주교인이요?”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김대건 신부님 한 분에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우리 신앙인 각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두 번째 한국인 사제이자 땀의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도 동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희년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을 경축하는 동시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기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첫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사제품을 받으시고 1년 만에 순교하셨기에, 두 번째 사제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께서 남은 땀을 온전히 감당하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일한 한국인 사제이셨던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께서 조선 팔도 가운데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등 남부 5개 도에 흩어져 있는 127개 교우촌을 해마다 7천 리(2,800km)를 걸어서 사목하신, 말 그대로 ‘길 위의 목자’였습니다. 박해를 피하느라 사람이 살 수 없는 산골짜기에서, 적게는 두어 명에서 많게는 오십 명 정도씩 흩어져 지내며 목자 없는 양처럼 해매는 교우들을 12년 동안 보살피신 최양업 신부님께서, 1861년 여느 때처럼 교우촌을 방문하러 가시던 길에 탈진하여 쓰러지셨고 고열에 시달리시다가 결국 14일 만에 병사하셨습니다. 그때 나이는 마흔이셨습니다.

이런 두 분의 동기 신부님들의 삶을 「가톨릭 직장인」은 지난 일 년 동안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땀의 증거자”라는 제목으로 매달 번갈아 가며 조명해보았습니다. 비록 희년은 이번 달로 끝날지 몰라도 성인들에 대한 공경과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증거 하는 일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인들과 신앙의 선조들을 공경하고 기억하는 일은 그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뉴시크스네라멘탈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본부장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땀의 증거자

최양업(7): 선생복종정로(善生福終正路)를 보여준 사제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_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김대건 신부는 2021년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여,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한국교회 역시 이러한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희년’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 번째 한국인 사제였던 최양업도 동갑이었다. 따라서 2021년 ‘희년’을 준비하면서 이분들을 기억하여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땀의 증거자”라는 제목으로 두 분의 삶을 번갈아 조명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부월(斧鉞)에 죽는 이는 잠시 치명(致命)이 어니와, 은수(隱修) 고수자(苦修者)의 공부는 곧 일생의 치명이라.” (『자책』 중에서)

촌 곳곳을 다니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그의 조선에서의 사목활동과 갑작스러운 선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

김대건의 사제생활이 13개월의 짧은 시간과 순교로 표현된다면, 최양업의 사제생활은 12년 2개월간의 강행군과 땀의 증거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최양업은 1849년 4월 15일에 상해에서 사제서품을 받고, 7개월가량 만주에서 사목활동을 시작하다가 조선에 들어와 1861년 6월 15일 선종할 때까지 교우

김대건이 사제서품을 먼저 받고 조선에 들어간 이후에, 최양업 부제 역시 조선에 들어가 사제품을 받고 사목 생활을 시작하기를 원했다. 실제로 김대건이 조선에 들어가 페레올 주교로부터 받은 첫 번째 임무가 메스트르 신부와 최양업 부제의 조선 입국을 도와주는 일이었다. 김대건이 순교하던 그해 겨울에 변문



도양골 성지 內 최양업 신부 시성기원비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맘의 증거자

최양업(7): 선생복종정로(善生福終正路)를 보여준 사제

(邊門)을 통한 육로로 입국하려 했으나, 조선의 밀사들을 통해 동료인 김대건과 신자들의 순교 소식만을 전해받았다. 그다음 해에도 고군산도에서 신자를 만났으나 끝내 조선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때의 심정을 최양업 부제는 편지에 남겼다.

“... 이제 손안에까지 들어온 우리 포교지를 어이없이 다시 버리고 부득이 상해로 되돌아오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저도 모르게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아직도 낙담하지 않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극히 선하신 섭리에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편지에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옮겨 적었다. “주님, 보소서. 저희 비탄을 보시고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소서. 저희의 죄악에서 얼굴을 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의 성심에 눈길을 돌리시어, 당신을 향하여 부르짖는 성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1847.9.20.)

어쩌면 신학생과 부제시절의 이러한 지향과 기도를 통해서 조선에서의 11년 6개월간의 사목적 공로(功勞)가 준비되었는지도 모른다. 최양업은 만주에서 이미 시작했던 병자 방문, 미사 강론, 교리교육, 성사 등 성무 활동을 배경으로 조선에 들어오자마자 강행군을 시작했다. 다블뤼 신부에게 병자성사를 주는 것으로 시작하여, 산골 교우촌을 방문하며 성사를 집전하고 교우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최양업 신부는 해마다 스승들에게 사목 보고를 하면서, 신자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좋은 일과 불행한 일을 정리해서 보냈다. 한 집안을 괴롭히던 마귀와 병마가 천주교 신앙으로 극복되는 이야기, 최고 양반이 하루아침에 가난뱅이 천주교인이 된 사례 등 교우촌에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전해주기도 했다. 그리고 그들의 비참한 생활에 공감하면서 참된 종교의 자유가 오기를 바라는 자신의 심정을 스승들에게 적어 보냈다.

페레올 주교가 병환으로 선종하고, 베르뇌 주교가 조선에 입국하여 교리교육에 좀 더 엄격

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즉 기존에 외우던 문답보다 많은 사본문답(四本問答, 영세, 고해, 성체, 견진에 대한 문답)을 다 익혀야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주어졌다.

“겨우 8-10세밖에 안 된 어린아이들이 교리 문답 전체와 긴 아침기도와 저녁기도의 경문을 청산유수로 암송하여 외우는 광경이 신기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 노파들이 우둔함을 무릅쓰고 열성을 부리는 모습을 바라볼 때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능력도 부족하고 기억력도 흐려서 경문을 하루종일 배우면서도 한마디도 입에 담지 못하여 애를 쓰는 모습이 안쓰럽기 짝이 없었습니다.”(1858.10.3.)

최양업 신부는 장상의 가르침에 순명하였으므로 충실하게 베르뇌 주교의 지침대로 사목 활동을 해나갔다. 그렇게 온몸과 마음을 바쳐 사목하다가, 1860년 지역적인 박해로 인하여 죽림굴이라는 곳에서 생쌀을 먹으며 피난 생활을 하며 쓴 편지가 그의 마지막 편지가 되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하직 인사가 될 듯합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계속 추적하는 포졸들의 포위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불쌍하고 가련한 우리 포교지를 여러 신부님들의 끈질긴 염려와 지칠 줄 모르는 애덕에 거듭거듭 맡깁니다.”(1860.9.3.)

박해가 조금 풀리자, 최 신부는 부족한 성무 활동을 만회하기 위해 교우촌을 방문하고 한양으로 올라가던 중에 객사하고 말았다. 그 때가 1861년 6월 15일이었다. 가장 절친했던 페롱 신부의 증언에 의하면, 최양업의 선종은 과로 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었고, 한 달 동안 3,4일 밖에 휴식을 하지 못하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배론에 있던 푸르티에 신부는 최 신부의 소식을 듣고 달려가 증부성사를 주었다.

“나는 간신히 그가 숨을 거두기 8, 9시간 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열성적으로 예수, 마리아의 두 이름을 되풀이하고 있었으므로 아직 의식이 있었을 것입니다”(1861.10.20.)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맘의 증거자

최양업(7): 선생복종정로(善生福終正路)를 보여준 사제

최양업을 가르쳤던 스승 신부들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함께 사목했던 분들의 증언은 모두 최양업 신부의 재능과 사목을 칭찬하였다.

“이번 1860년 박해 덕분에 5권의 교리서가 막 교우들에게 배포된 상태이며, ... 우리 기도서(성교요리문답) 작업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어요. ... 이 서적들은 거의 전적으로 조선인 사제 토마스 신부의 작업에 빛을 지고 있습니다. 저는 교작해야 8, 9개월 그 작업에 매달렸을 뿐입니다.”(다블뤼가 부모에게 보낸 편지 1861. 1월)

다블뤼는 최양업 신부의 선종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신학생인 동생에게 알린다.

“6월에 우리의 유일한 조선인 사제 최 토마스 신부가 갑작스레 병을 얻어 우리 곁을 떠났다. ... 그 무엇으로도 이 상실감을 너에게 표현할 수가 없구나. 이 상실감을 이해하려면 그가 조선대목구에 바친 수많은 봉사와 그가 조선교회에 가져다준 모든 이익을 봐야만 한다. 그 말인즉, 우리가 처한 상황

에서 그는 확실히 가장 대체하기 힘든 인물이었다는 것이지. 그러니 우리의 애도와 애석함이 얼마나 클지 짐작해 보아라.”(1861. 9월 이시도르 다블뤼 신학생에게)

신학생 때부터 지켜보았던 베르뇌 주교는 최양업 신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우리의 유일한 현지인 사제 최 토마스 신부는 굳건한 신심과 영혼의 구원에 대한 불타는 열의, 그리고 대단히 값진 그의 훌륭한 분별력으로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 마지막 성사를 줄 때, 예수 마리아 두 마디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 비범한 재능을 타고난 그는 몇 해 동안의 학업만으로 라틴어를 아주 정확히 말하고 쓸 수 있었습니다. ... 12년간 거룩한 사제의 모든 본분을 지극히 정확하게 지킴으로써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성공적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저는 큰 곤경에 빠졌습니다. 그가 사목한 구역에는 서양인이 큰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서는 들어가기 힘든 수많은 마을들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우리에게서 데려가신 천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베르뇌 서한집)

최양업 신부의 업적을 정리해본다. 무엇보다 발로 뛰는 선교 사제, 신학생 양성, 한글 천주교 서적 간행, 신자들을 배려하는 마음. 증언자들에 의하면, 늘 갓끈 자국이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햇볕에 그을리며 조선을 누

비던 사제였다. 최양업은 자신이 남긴 첫 번째 편지에서 “저의 동포들이 마침내 시온성으로 회두하여 우리의 창조주시오, 구세주이신 하느님을 찬송할 날이 언제쯤 올 것인가요!”하고 한국의 복음화를 열망하였다. 그리고 그의 11년 6개월간의 사목활동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그 생명력이 이어지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탄생 200주년에 그분의 소중한 공로를 기억하자. ☪

묵상

1. 나는 복음 선교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2. 가경자 최양업의 시복과 공경을 위해 개인적인 전구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동안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업 신부님에 대한 소중한 글을 써주신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1월호부터 한국 순교자들에 대한 새로운 글을 연재해주실 신부님께 애독자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믿는다는 것은?

허영엽 마티아 신부_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매주 성경을 읽어봅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본문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필사해봅시다.

1. 신앙(信仰)이란 무엇인가?

⋮

마르코복음 16,1-20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기본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들입니다. 하느님께로 가는 구원에서 예수님은 수난을 당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구원으로 가는 길에 겪어야 하는 이 수난과 죽음이 큰 걸림돌이 됩니다(마르 15,31-32).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신앙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밤, 베드로와 제자들 대부분은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을 직접 체험하고 난 후 비로소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마르 16,11-14)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에 대한 증인으로서(사도 10,39) 예수님이 하느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성취하십니다(사도 2,33-36). 구원을 선포하다 십자가에 달리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며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신앙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죽음까지 내어 줄 수 있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신자들에게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어 구속의 은총을 받도록 신앙에 참여하라고 권고합니다(사도 2,38-39). 이렇게 거룩한 교회의 신앙이 탄생했습니다.

2.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말씀에 대한 믿음

⋮

1테살 2장을 읽어보세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동과 말이 다른 경우 우리는 그를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위선자라는 말은 아주 큰 비난이 됩니다. 우리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있듯이 진리와 신뢰뿐 아니라 불신과 거짓 역시 존재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무엇보다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내용은 진실인가?’ 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우리들은 흔히 말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그 내용은 진실하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전의 두려움을 벗어나고 복음의 진리를 목숨을 걸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제자들이 선포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 인간의 말로 전해 듣지만, 그 내용은 하느님의 말씀(1테살 2,13)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방인이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 계신 참된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1테살 1,8-10). 주님이신 예수께서 하느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 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마태 28,19)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을 깨닫게 해준다고 가르칩니다(코로 2,3). 이처럼 신앙은 인간의 지혜와는 다르며(1코린 1,17-31), 성령에 의해 계시된 하느님 지혜입니다.

3. 신앙은 실천이 중요하다

⋮

야고보서 1장을 읽어보세요.

신앙(信仰)의 사전적 의미는 믿고(信) 따른다(仰)는 것입니다. 즉 신앙이란 내가 믿는 내용을 삶으로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야고 2,17). 마음으로 믿기만 하고 삶 속에서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그런 믿음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합리적이며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가 입교를 하게 될 때 다른 교우의 사랑과 나눔과 선한 삶에 매력을 느껴 성당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신자이면서 행실이 바르지 못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뿐 아니라 그의 부모, 그가 믿는 종교에도 비난을 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반응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현실에는 많이 존재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진정한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행동이란 예수님께서 삶에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의 실천을 말합니다. 더 나가서 야고보서는 구체적인 말과 행동으로 속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는 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야고 1,22). 이처럼 믿음과 실천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로 일치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신앙과 생활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속에서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에게는 부단히 고통과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4. 믿음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

⋮
마태오 7장을 읽어보세요.

우리의 모든 삶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도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의 열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며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것’ 또는 ‘하느님께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오”(마르 1,15)라고 선포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를 해서 하느님께로 돌아옵니다. 회개하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큰 축복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또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지속될수록 단단해지

고 성숙해집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앞에 전개되는 것은 악의 유혹입니다. 때로는 수난이나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들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에 더욱더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하는 기도는 “믿음으로 청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믿음이 더욱 깊어질수록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똑바로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어떤 유혹 안에서든 우리는 흔들림 없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과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이는 온전히 하느님께 의지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세상에 희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절망에 빠지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느님을 향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삶으로 변화합니다. 그 새로운 삶은 바로 내가 주인 아니라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인 삶입니다. ☪

미사 바로 알기 (1) - 새 로마 미사 경본

전호엽 프란치스코 신부_ 사제평생교육원 부원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날인 주일에 교회의 구성원인 신앙인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을 기념합니다. 감사의 의식인 미사는 그것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미사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거행되어야 하는지 잘 설명해 놓은 전례서가 바로 미사 경본입니다.

전례 개혁 작업

오늘날 우리가 거행하는 미사가 처음부터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행 방식으로 체계화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오랜 준비 작업과 개혁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이르러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의 발표로 이어진 것입니다. 전례 개혁은 신자들이 전례에 의식적이고 완전하며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1970년에 전례 개혁의 내용을 담은 라틴어 표준판 「로마 미사 경본」이 출간되었고,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30여 년에 걸친 준비 작업 끝에 이를 새 한국어판 「로마 미사 경본」으로 출간함에 이릅니다.

미사 경본의 발전

현재까지 이어지는 로마 미사 예식의 큰 틀은 성 그레고리오 대교황(590-604) 때에 일정한 순서로 엮어 놓은 것입니다. 그레고리오 교황은 신자들에게 전례가 영적 양식을 줄 수 있기를 갈망하면서 전례를 재조직했습니다. 특히 전례 예식의 간소화를 지향했는데, 이는 신자들이 복잡한 전례 언어에서 벗어나 보다 직접적으로 전례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 그 내용이 점차 풍부해지면서 체계적인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1570년, 성 비오 5세 교황은 로마 전례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가 통일된 미사 예식을 거행하도록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의 결정을 따른 로마 미사 경본’을 공포합니다. 실제로 이 경본은 부분적인 수정을 거치면서 이후 400년 동안이나 로마 전례를 따르는 사제들에게 성찬의 희생 제사를 거행하는 규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사 경본이 사용되는 동안 전례가 성직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라틴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신자들은 전례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20세기 개혁 작업

20세기에 들어서 변화되어가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례의 전반적인 개혁이 단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전례가 개혁되어야 교회 생활이 쇠신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례 개혁을 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예식서 개정을 위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회의 건전한 전통을 보존하는 한편, 올바른 진보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 전례의 각 부분을 면밀하게 연구했습니다. 오랜 교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회에 이익이 되도록 법칙을 개혁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예식서들을 개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에는 세계 여러 지역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교 종파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고, 그 안에 지켜온 귀중한 보물들에도 눈을 돌렸습니다.

전례 개혁에 따른 「로마 미사 경본」의 출간

오랜 개혁 작업의 결과로 1970년 성 바오로 6세 교황이 승인한 라틴어 표준판 「로마 미사 경본」이 나왔습니다. 이 경본은 1975년에 제2표준판이 나왔고, 현재 「로마 미사 경본」 제3표준판(수정본, 2008)까지 나왔습니다. 2017년에 발행된 한국어판 「로마 미사 경본」도 이 최신판을 번역한 것입니다. 제2표준판에서 제3표준 수정판으로 출간되기까지 33년 동안 내용에 여러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사이 개정된 교회법과 개정된 전례 규정, 새로 시성된 성인들의 축일이 반영되었고, 미사의 규정들을 해설하는 지침들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더 정확하고 풍요롭게 정리했습니다.

한국어 미사 경본

우리나라에는 1974년 교황청의 인준을 받아 1976년부터 사용했던 한국어 「미사 경본」이 있었습니다. 이 미사 경본을 사용하면서도 한국 고유의 예법과 어법에 알맞도록 수정하고 원문에 더 충실하게 번역하려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 결실로 1996년에 미사 거행의 뼈대를 이루는 「미사 통상문」이 나와 20여 년 동안 사용했고, 2017년에 새 한국어판 미사 경본이 나온 것입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미사 경본」은 ‘Missale Romanum’이라는 라틴어의 번역에 충실하여 「로마 미사 경본」으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더불어 모든 전례 시기와 각종 예식, 기원 미사의 기도문들도 포함되었습니다. 다양하게 갈아입을 수 있는 거행 양식이 마련된 것입니다. 미사 독서집과 복음집도 출간되어서 이제는 미사에서 사용되는 예식서들이 품위를 제대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1570년의 비오 5세 교황 「로마 미사 경본」에는 미사를 노래로 봉헌할 수 있도록 악보가 늘 포함되어 있었는데, 새로 출간된 한국어판 경본에도 이를 반영하여 악보를 통해 더 장엄하게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나지 않은 작업

지난 2007년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자의 교서 「교황들」을 통해 현행 바오로 6세 미사 경본을 성찬 전례의 ‘일반 양식’(Forma ordinaria)으로, 종전의 비오 5세 미사 경본을 성찬 전례의 ‘특별 양식’(Forma extraordinaria)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양식이 동일한 예식에 대한 두 가지 방식을 분명히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기념하는 방식을 교회 공동체가 역사 안에서 크게 두 번 정리한 것으로 생각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교회는 미사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고, 신자들은 성찬례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개정 작업 이후에 한동안 많은 이들이 새로운 전례 관습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전례 개정의 정신을 잘 알지 못한 채 ‘낡은 자루에 새 포도주를 붓듯이’ 예식 요소들을 섞어 사용하는 일도 빈번했고, 여전히 곳곳에서는 그런 관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새로운 방식이 자리를 잡는 데 따르는 자연스러운 진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어받은 미사 전례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다시금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형식이나 언어가 바뀌고 규칙이 변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닌, 그 근본에 있는 전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한 걸음씩 우리 나름의 쇄신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오랜 교회의 쇄신 작업에 능동적으로 동참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성녀 메히틸다(마틸다)

St. Mechtilde(Matilda) (축일: 11월 19일)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_작은형제회

서양 여성의 이름들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마틸다”(Matilda)입니다. 오묘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전해주는 이 이름을 사용하는 여배우나 여 주인공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1996년에는 ‘마틸다’라는 이름으로 영화가 제작되었으며, 그 줄거리도 여주인공이 자신의 초능력인 염력으로 교장 선생님과 맞선다는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틸다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기묘하고도 신비스러운 느낌이 동서를 막론하고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름이 왜 신비스러운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름의 어원과 그 이름을 쓴 성녀가 어떻게 살았길래, 하느님께서 이 ‘마틸다’라는 이름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이 마틸다(Matilda)라는 이름은 원래 독일 게르만어에서 파생된 어휘들을 라틴어식으로 표현한 이름입니다. 원래 마틸다는 게르만어로 ‘마히틸트’ 혹은 ‘메히틸다’였습니다. 자세히 어원을 구분해서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게르만어로 ‘힘, 권능’(might)을 뜻하는 ‘마흐트(macht)’, ‘메흐트(mecht)’가 있고, ‘싸움, 전투, 투쟁’(battle)을 뜻하는 ‘힐트(hild)’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어휘의 합성어로 “투쟁의 힘, 싸울 권능, 힘찬 투쟁”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이 ‘마틸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메히틸다’라는 이름을 지닌 대표적인 성녀는 누구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자매 모두가 수녀였던 독일 하크본(Hackeborn)의 성녀 ‘메히틸다’(1240-1298)가 단연코 이런 이름의 뜻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언니는 제르투르다 수녀입니다. 언니는 독일 로더스도르프(Rodersdorf)의



베네딕토 수녀회 원장으로 있었고, 언니와 함께 잠시 수녀원에 살면서 수도 생활에 매력을 느껴 7살부터 수녀원에서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학업도,德行도 훌륭히 진보하였습니다. 18세에 종신서원을 하였고,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학교의 교육을 담당하였습니다.

1261년에는 후에 위대한 성녀가 될 여자아이인 제르투르다가 그녀가 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제르투르다의 교육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메히틸다 성녀는 자신의 제자인 제르투르다를 돌봐주고 지도하면서, 자신도 함께 수많은 초자연적인 신비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인 제르투르다가 그리스도의 발현을 체험한 후에 제자가 이에 대해 저술하려고 할 때, 그녀가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메히틸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느님 사랑의 사자(Legatus Divinae

Pietatis'라는 대표작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메히틸다도 제르투르다와 함께 여러 체험을 하면서, 주님의 힘을 강하게 느꼈고, 예수 성심 신심에 대하여 특별한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숨을 거둘 무렵인 1298년 11월 19일에도 “자비로우신 예수님!”이라고 외치며 선종하였습니다. 이후 베네딕도회와 시토회, 트라피스트회에서는 그녀의 선종일에 맞춰 11월 19일에 성녀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수도자이지만, 자주 자기 힘으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힘찬 투쟁을 이 세상에서 벌여야 하지만, 자기의 계획과 지력과 이기심으로 싸움을 걸면서 살아가는 이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계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신다는 진리를 믿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각인시켜 주고 싶으신데, 어느 누구도 힘찬 투쟁을 벌여나가려고 전진하지 않기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이런 가운데 용감한 여인, 담대한 여인, 힘찬 투쟁을 벌여갈 신비로운 여인인 ‘메히틸다’가 하나의 모범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만의 ‘마틸다’로, 모든 이들의 ‘마틸다’로 살아가실 담대한 딸을 주님은 간곡히 찾고 계십니다. 혹시 ‘마틸다’라는 이름을 세례명으로 쓰고 계신다면, 당장 지금부터 신비로운 권능에 힘입어 힘찬 영적 투쟁을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함께 싸워주실 것입니다. 🙏

가톨릭 직장인 후원금 안내

1. 개인 후원: 1구좌 당 70,000원
2. 교우회 후원: 1구좌 당 300,000원 (월보 지면에 광고 게재 가능)
3.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1-784447,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4. 문의: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2-727-2078, 010-4799-2078 / gikjang@catholic.or.kr

2021년 예비자교리 현황

2021년 직장공동체 예비자 교리를 아래와 같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예비자교리를 하시는 예비신자들을 위하여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교우회명	SC제일은행	강북구청	구로구청	국회	서대문구청	총 / 22명
인원	1	1	2	4	1	
교우회명	서울시청	서초구청	제주항공	한국은행	-	
인원	1	7	4	1	-	

구 분	내 용
교리기간	6월 7일-12월 10일, 총 27주
교리방법	EDWITH를 이용한 비대면 교리
참고피정	12월 12일(주일) 09시 30분~16시, 영성센터 B201
세례성사	12월 19일(주일) 13시 30분, 명동대성당
문의전화	02-727-2078, 2080 / 010-4799-2078

서울시교육협의회 창립 25주년 기념 신앙대회

구 분	내 용
때, 곳	11월 13일(토) 13시~17시, 중랑구청 대강당
대상	시청 및 자치구와 공사공단 가톨릭직원(퇴직자)및 가족
문의	중랑구청 교우회(2094-2232)
내용	희년 및 힐링 특강과 이벤트, 장엄미사

※ 유튜브 실시간 방송(<https://youtu.be/DZfSBddCpKk>)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생태적 회심: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해설

「찬미받으소서」를 소개합니다!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하나가 세상에 소개되었을 때의 반응을 저는 기억합니다. 준비 단계에서부터 큰 관심의 대상이었던 이 회칙은 반포 이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극찬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신문과 방송에서 회칙의 내용과 의미를 비중있게 다루었고, 다른 종교인들까지 이 회칙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지요. 한국에서도 출간 1주일 만에 초판 5,000부가 매진되고 초판이 11쇄까지 나올만큼 인기가 높았습니다. 올해 5월에는 우리 말 번역을 좀 더 다듬은 개정판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이 회칙은 반포 6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읽혀지고 현장에서 적용되며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제목

이 역사적인 회칙의 이름은 바로 「찬미받으소서」(Laudato Si')입니다. 제목만 보면 기도서나 성가책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 회칙은 오늘날의 생태 문제를 가톨릭 신앙의 관점에서 성찰하며 회개와 행동을 촉구하는 교회 문헌입니다. 다루는 내용에 비해 제목이 뜻밖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학자들이 원래 제안했던 제목은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하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황님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태양의 찬가'에 나오는 후렴구 "저의 주님, 찬미를 받으소서(Laudato si', mi' Signore)"를 말씀하시며, 이 회칙의 제목은 꼭 '찬미받으소서'로 정해야 한다고 고집하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찬미받으소서」라는 제목이 암시하듯이, 이 회칙은 생태 환경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지향점이 근본적으로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강조합니다. 즉 「찬미받으소서」는 공동의 집 지구를 돌보는 것에 관한 일이 단순히 '환경 보호'에 그치지 않고 창조주 하느님을 향한 '신앙의 행위'로 나아가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이처럼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찬미받으소서'라는 이름의 회칙을 통해 교회의 생태 담론이 일상의 신앙과 연결되기를 바라십니다. 지구라는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은 몇몇 환경 운동가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네 신앙살이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태'와 '신앙'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회가 왜 정부나 환경 단체의 일에 나서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창조 세계를 보호하는 일은 단순히 물리적 생존의 차원을 넘어 그분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소명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생태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생활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그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창조주를 찬양하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오늘날의 생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투신이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64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성과 접근법

「찬미받으소서」 회칙은 서문과 6개의 장(총 246항), 그리고 두 개의 기도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적인 구성은 가톨릭 사회윤리의 기본적인 3단계 전제 방식을 따릅니다: 관찰(See) - 평가(Judge) - 행동(Act). 첫 번째 단계에서 회칙은 먼저 오늘날 생태 위기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진단합니다(1장).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생태 환경에 대한 성경과 교회 전통의 풍부한 가르침을 정리하고(2장), 생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철학적이고 사회 과학적인 성찰을 한 다음(3장), 환경·경제·사회 생태론을 포함하는 통합 생태론을 제시합니다(4장). 세 번째 단계에서는 다양한 대화를 통한 실제적인 접근법과 행동 방식을 제안하고(5장), 생태 교육과 생태 영성의 전망 안에서 새로운 의식과 생활 양식의 변화를 강조합니다(6장).

이러한 구성에서 볼 수 있듯이, 「찬미받으소서」는 생태 환경 문제에 대하여 매우 포괄적인 접근을 합니다. 오늘날 현대 과학의 자료를 근거로 생태 위기를 정확하게 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또한 다양한 신학적 성찰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하느님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회복하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요청합니다. 가톨릭 신자들뿐만 아니라 지구 행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적 윤리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회칙은 지속 가능한 세상을 향한 공동 여정에서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안내하는 ‘생태적 나침반’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제

종합적인 시각에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찬미받으소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 회칙에서 강조하는 바를 종합해볼 때, 우리는 이 회칙이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달부터 새로이 연재하는 이 꼭지의 제목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생태적 회심”은 「찬미받으소서」의 주제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생태 위기를 단순히 우리 외부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회칙은 우리 마음과 의식에 문제가 있어서 지구가 병이 난 것이라 진단하고 일시

적인 해결책보다는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불난 집에 불을 끄는 것처럼 빠른 해결 방법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이 진정한 발전인지 성찰하며 의식의 전환을 이루자는 것이지요.

「찬미받으소서」가 강조하는 생태적 회심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더욱 중요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처럼 코로나19가 생태계 파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그러한 문제를 야기했던 인류 자신이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분별한 성장과 개발 대신 생태계 보전과 생명의 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대전환이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물질 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생명 중심의 가치관으로 전환하고, 하느님 창조 세계에 대한 우리의 기본 태도와 우리네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危機)’는 지속 가능한 세상을 향한 ‘기회(機會)’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찬미받으소서 | 프란치스코 교황 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2015년 9월 5일

기도 학교

관상기도

차동욱 시몬 신부_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영성지도

이번 호에서는 관상기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묵상기도를 설명하면서 잠잠한 침묵 속에서 생각하는 기도라고 했다면, 관상기도는 같은 침묵 속에서 그저 바라보고 느끼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의 결과로 감동과 위로를 얻고 새 삶에 대한 의지와 힘을 얻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 방법과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 묵상은 묵상의 소재에 대한 추리이며 뜻을 풀이하는 것이라면, 관상은 하느님과 함께 머물며 그것을 체험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상기도는 하느님과의 직접적인 친밀함과 사랑의 관계를 더욱 강조하게 됩니다.

이제 관상의 개념부터 알아보며 관상기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상기도에서 관상의 한자어는 ‘觀想’입니다. ‘바라보는 것’을 뜻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관상은 theoria(θεωρία)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 ‘하느님을 보다’라는 개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하느님께 대한 직접적이고 완전한 인식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한 단어가 theologia(θεολογία)인데 이것이 ‘신학’이 되었습니다. 라틴어로 관상은 ‘contemplatio’입니다. 이 안에 포함된 ‘templum’이라는 단어는 고대에 점성가들이 세상의 징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하는 별도의 공간을 뜻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성전에서 삶에 대한 신적인 의미와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내부를 바라보는 모습에서 ‘contemplatio’라는 단어가 유래한 것이지요. 이렇게 그리스어 또는 라틴어에서 보다시피 관상기도의 관상은 모두 바라보는 것을 그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시각의 활용이 아니라 자



신의 내면 안에서 진실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 자신을 대하시는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가진 관상기도에 대하여 그 범위를 더 넓힌다면, 그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실천하기가 아주 어려운 높은 단계에 이르기기도 합니다. 영성신학은 기도의 단계를 설명할 때, 기도의 대가이신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의 이론과 체험을 자주 제시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기도는 9가지 단계로 제시되어 있고, 관상기도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만 4단계에서 출발하여 9단계에 이릅니다. 관상의 후반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 탈혼, 영의 이탈, 영적 결혼이라고 불리는 하느님과의 일치 등, 일반적인 경우에는 감히 경험하기 어려운 기도의 모습들이 관상기도의 범주 안에서 가르쳐 집니다.

그래서 같은 관상기도라 할지라도 이 단계에 따라 관상기도의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습득 관상’이며 다른 하나는 ‘주부 관상’입니다. 습득(習得) 관상(acquired contemplation)은 수득 관상이라고도 하며, 관상기도에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의 능동적 행위가 주를

이루는 형태의 관상을 말합니다. 익히고 얻는다는 말뜻처럼 기도하는 사람의 생각과 의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관상기도를 말합니다. 주부(注賦) 관상(infused contemplation)은 수동적 관상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주전자의 물이 부어지는 것을 연상하듯이 기도하는 사람의 능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은총의 작용을 기도 안에서 받아들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습득 관상은 성령 안에서 기울이는 우리 자신의 노력과 신심으로 관상의 모습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추론적인 묵상의 단계에서 지성이나 의지를 사용하며 드리는 모든 기도가 습득적 관상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과 갈망 안에서 하느님께 대한 현존 의식을 시작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느님과 만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습득 관상의 의미가 기도하는 사람의 의지나 지성이 바탕이 되고 능동적 행위라 일컬어진다 하더라도, 모든 기도가 그러한 것처럼 습득 관상의 상태에서도 성령의 은사는 항상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갈망하면 성령께서는 하느님 사랑을 바로보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부 관상은 하느님을 갈망하는 행동에서부터 우리의 기도의 원천이신 성령의 은사가 지속적으로 주도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주부 관상의 상태를 표현할 때 ‘다만 아는 것은 내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뿐’이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그만큼 자신의 말, 생각, 감정마저도 초월하여 느끼게 되는 기도입니다.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의 작용을 받아들여 자신 안에서 이루시는 그분의 사랑과 빛을 간직하게 됩니다. 주부 관상의 상태가 수동적 관상으로서 하느님 은총의 작용이 더 큰 의미를 차지하긴 하여도 하느님께서 당신의 원의로만 이루시지 않고 우리의 동의를 구하신다는 것이 주부 관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관상기도에 있어서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과 원의는 공통된 것이며 모든 기도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관상의 범주나 단계에 대한 이해를 이 정도에서 뒤로하고 실제적인 관상기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상기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기도학교에서 그동안 우리가 그 의미를 설명한 여러 다른 기도를 단계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소리기도라고 하는 염경기도, 렉시오 디비나를 중심으로 한 묵상기도를 알아보았습니다. 관상기도는 이 모든 기도가 함께 이루어지는 단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기도에 익숙해지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순서를 따릅니다. 관상기도는 여기에서 더 이상의 추론과 탐색을 멈추고, 하느님과 함께 머물고자 하는 지향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12세기 카르투스시 수도회의 귀고 2세(Guigo II the Carthusian)라는 분은 「관상 생활에 관한 서한」에서 렉시오 디비나 안에서의 관상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독서(lectio)는 성경에 대한 주의 깊은 연구로서 여기서 우리는 모든 주의를 기울인다. 묵상(meditatio)은 성서를 음미하고 이성의 도움으로 거기에 감추어진 진리를 찾고자 노력하는 정신의 활동이다. 기도(oratio)는 우리를 악에서 구하고 우리가 좋은 것을 얻도록 하느님께 청하면서 그분께 마음을 돌리는 의향이다. 관상(contemplatio)은 그것 자체를 뛰어넘어 영원한 감미로움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식으로 하느님께 마음을 경건하게 들어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묵상기도를 할 때, 성경 읽기로 먼저 시작합니다. 읽은 것을 묵상하게 되는데 정신이 중심이 되어서 기도합니다. 하느님과 하느님에 대한 모든 것을 상상하고 이해하고 숙고합니다. 이 기도의 끝에 묵상의 이해에 대한 찬미와 감사, 또는 성찰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관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 때의 정신도, 기도 때의 입술도 이제는 멈추고 의지가 오직 하느님을 향하여 나가고 하느님과 하나 되는 마음을 추구하며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 관상기도의 모습입니다.

성 이냐시오가 영신수련에서 제시하는 관상기도의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관상의 모습을 우리가 이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이것은 상상력을 활용한 묵상으로서 묵상과 관상의 경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인 또한 당신의 관상 방법을 “관조적 묵상”이라고 하여 성경의 내용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기도의 방법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의 오감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활용하여 성경의 장면을 생생히 체험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통한 삼위일체와 실제 만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때, 성경 안에서 오감을 활용하여 머물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상상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이라고 말할 때, 그 느낌은 뭔가 허구와 허상, 실재하지 않는 것을 떠올려 신뢰감이 떨어지는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 안에서의 상상은 망상이나 환상과 같은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드러내신 힘의 한 부분입니다.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능력이기도 한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 안에서 하느님을 바로 알아보고 현재의 시간에 제약 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냐시오식 관상기도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주어진 성경을 읽고 의지와 지향을 하느님께 향하고자 하는 준비 기도를 통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은총을 특별히 청하며 하느님께 대한 현존의식을 가집니다. 그다음, 읽었던 성경의 장면을 떠올려 그 이야기를 따라가거나 그 속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오감 활용이 도움이 됩니다.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의 감각을 하나하나 적용시켜보며 장소와 인물들이 주는 생생함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되어 그분의 마음도 함께 느끼게 되고, 성경의 어느 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 상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 겪게 되는 모든 것은 성경 말씀의 더 깊은 면이고 또 다른 면이면서 오직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과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깊이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면서 얻은 감동과 교훈을 간직

하며 대화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관상의 끝에 감사의 마음이나 새로운 삶에 대한 결심을 간직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관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상이란 사랑의 지식, 하느님께서 내리신 사랑 겨운 지견으로서, 깨달음으로 영혼이 그 창조주 하느님께 한층 올라가기까지 영혼을 비취주며 사랑에 불타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사랑만이 영혼을 하느님께 결합시켜 하나가 되게 하는 까닭이다.” 성인의 말처럼 관상은 정신의 작용으로 시작하는 지식이지만 결국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공통된 결과이자 목적이기도 합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무한한 사랑이신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는 그것이 아무리 짧은 소리기도나 청원기도일지라도 사실 하느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관상기도는 그 기도의 목적을 가장 직접적으로 향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데레사 성녀의 말처럼 말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합니다.” 사랑의 대상을 생각하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이 관상기도입니다. ❀



주님의 뜻?!

가톨릭 직장인 모임교재팀

1. 주님을 초대한다.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 삶을 바라본다.

오래된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난 토마는 본당에서 50대 초에 총 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젊은 시절부터 신앙심이 남달랐다.

그동안 본당은 물론 수도회와 도움이 필요한 여러 단체에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덕분인지 두 자녀들도 잘 성장하였고, 여지껏 가정도 평탄하였다.

코로나 19 이후로 매출 부진과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결국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새벽미사, 54일 기도, 철야기도 등 하느님께 간절히 매달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후 믿음이 약해진 그는 기도는커녕 본당 주일 미사도 게을리 하는 등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어버렸다. 오히려 평소 기도도 하지 않던 아내가 자신에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주님의 뜻을 알 수는 없으니 희망을 잃지 말자”고 용기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Question

내가 원하는 기도의 지향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 믿음이 흔들려 본 적이 있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3. 하느님께 귀를 기울인다.

1) 성경 본문을 읽고 함께 나눈다.

루카 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돌을 던지면 땅을 만힌 곳에 혼자 가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때에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그분의 기운을 복돋아 드렸다.

2) 성서본문 중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외친 후 묵상한다.

3)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눈다.

내 뜻과 하느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나는 무엇을 선택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4. 교회의 문헌을 읽는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덕과 자기 신분의 완성을 추구하도록 권유받으며 또 그러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모든 이는 자기 마음을 바로 다스리도록 정신을 차려야 하며, 복음적 청빈 정신에 어긋나는 현세 사물의 사용이나 재산에 대한 집착으로 완전한 사랑의 추구를 가로막지 않게 하여야 한다. 사도는 권고한다. 이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결코 그 안에 안주하지 마라.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말 것이다(1코린 7,31 참조). [교회헌장 42장]

구송기도를 완전히 하는 방법을 말하고, 구송기도와 묵상기도를 병행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함

“마음에도 없는 이런 고생을 당하는 사람이 이 고생이 자기 탓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을 하면 오히려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리

고 정신이 어지러운 판에 무엇을 알아듣겠다
고 무리를 하여서도 안 됩니다. 그저 힘닿은
데까지 빌고, 몸이 아파서 빌기조차 힘들 때
는 정신을 쉬면서 여러가지 덕행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삼가는 사람들, 그리
고 하느님과 이야기 하면서 동시에 세상과 이
야기 할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요 속에 있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
우시면 이것을 넉넉하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고 주께서 우리 기도에 화답하시는 것을 깨

달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당신의 화답을 듣지 못해서 아무 말씀도 안하
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에 말
씀해 주십니다.” [완덕의 길 24장]

5. 실천계획을 세운다.

6. 기도나 성가로 모임을 마친다.



완덕의 길 | 예수의 성녀 테레사 저 | 최민순 역 | 바오로딸 | 2020년 6월 30일

Cornerstone



마리아의 이름은?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모친으로서 흔히 복되신 동정 성모 마리아라고 불리고, 전세계 인구 18%를 차지하는 13억 가톨릭 신자들이 성모 마리아를 부르는 존칭에서 비롯된 친숙한 이름들이 많다.

성모님의 본래 이름은 '마리아(Maria)'로 영어식 표현은 Mary이고, 항상 새해는 1월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시작한다. '안느 치아파(Annunciata)'는 '성모영보(Annunciatio)'의 성모님 세례명이고, 아름다운 장미에 비유되는 성모님의 애칭은 '로즈마리 (Rose-mary=Rose+Mary)'이다.

'가르멜라(Carmela)'는 12세기 이스라엘 가르멜(Carmel)산에서 성시몬에게 용기를 북돋워준 동정 성모님을 의미하고, 오페라 '카르멘 (Carmen)'의 집시 여주인공 이름도 여기서 비롯된다.

'스텔라 (Stella)'는 9세기의 라틴어 찬가 '마리스 스텔라(Maris Stella-바다의 별)'의 줄임말로 마리아가 길잡이 별이 되어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서 신앙의 배를 타고 하느님을 찾아가는 신자들을 인도한다는 의미이다.

'아순타(Assunta)'의 이태리어 뜻은 '들어 올려진'으로 성모승천의 의미를 가지고, '첼리나(Celina)'는 하늘의 여왕인 성모님으로 라틴어 Caelus(하늘 승천)에서 유래되었다.

'나탈리아(Natalia)'는 성모 탄신일을 기념한 세례명이고, '돌로로사(Dolorosa)'는 '성모통고'의 의미를 가지는 세례명이며, '임마콜라따 (Immacolata)'는 '원죄 없으신 잉태(Immaculata conceptio)'에서 유래한 세례명이다.

목주는 영어로 Rosary라 하며, '로사리아(Rosaria)'는 목주의 성모 마리아의 애칭이고, '릴리안(Lilian)'은 순결하고 고귀한 의미의 백합 (Lily)에 비유되는 성모님의 애칭이다.

유명 팝 여가수 '마돈나(Madonna)'는 성모 마리아를 묘사한 그림이나 조각품, 귀부인이라는 뜻이고, 파리의 성당 '노트르담(Notre Dame)'은 '우리의 귀부인'이라는 뜻으로 성모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 성당을 지었다는 뜻이다.

'롤라(Lola), '롤리타(Lolita)'는 고통을 겪는 성모 마리아를 의미하는데, 아들인 예수의 죽음을 눈앞에서 겪은 성모의 심정을 나타낸 스페인어 '마리아 데 로스 돌로레스(Maria de los Dolores, 고통의 마리아)'를 축약한 이름이다.

성모송(Ave Maria)는 직역하면 '안녕하십니까, 마리아님' 또는 '축하합니다, 마리아님'이라는 뜻이 있는데, 'Ave Maria, gratia plena'로 시작되는 라틴어 성모송의 그 첫 단어를 제목으로 한 것이다.

고전 음악을 듣다

베를리오즈 -
빛과 어우러진 '죽은 자를 위한 대미사'(레퀴엠)

조병선 바오로 청주대 법학과 교수

연재 중 드디어 프랑스 음악으로 장면이 바뀌었다. 베토벤과 슈베르트를 기폭제로 시작하여 낭만주의를 이끌었던 독일의 1809년생 멘델스존, 1811년생 리스트와 함께 동시대 활약한 프랑스의 1803년생 베를리오즈는 낭만주의 속에서도 독특하다, 일찍이 17세기의 장 밥티스트 륄리 이후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프랑스 음악계에 내린 단비와도 같았다. 그의 인생도 여느 음악가와와는 다르다. 아버지가 의사였던 베를리오즈는 원래 음악과는 무관하게 의사의 길을 걷고 있었다. 작은 시골의 의사였던 아버지는 아들을 시골 학교에 보내는 대신 자신이 직접 가르쳤고, 그 결과 아들은 그리스 로마의 고전까지 아우르는 박학다식한 지성인으로 성장하였고, 19세 되던 해에 예정된 의학 공부를 위하여 파리로 유학하였다. 촌뜨기 베를리오즈는 화려한 파리에서 우연히 글루크(Gluck)의 오페라에 큰 감명을 받아 음악가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당연히 맹렬하게 반대하는 아버지를 끈질기게 설득할 정도로 결심은 굳건하였다. 피아노조차 칠 줄 모르는 문외한 베를리오즈는 결국 23세(1826년)에 파리음악원에 입학하였다. 그는 파격적인 자신만의 음악을 고집하여 교수들에게 골칫거리로 떠올랐고, 당시 파리음악원장 케루비니와 마찰도 불사하며 자신만의 음악을 고집하여 결국 로마대상에 수차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지만, 끝내 천재의 빛은 가려질 수 없었기에 로마대상을 수상하였다.

그즈음 파리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던 영국 셰익스피어 극단의 '햄릿'(1827년)의 여주인공 '오페리아'역을 맡은 여배우 해리엇 스미드슨(Harriet

Hector Berlioz: Symphonie fantastique
Les Siècles / François-Xavier Roth, Conductor
Release Date: October 25, 2019
Duration: 01:05:49
Recording Date: July 16, 2019
Label: Harmonia Mundi (HMM902644)



Smithson)(10세 연상)을 일방적으로 짝사랑하게 되었고, 그 아픈 상사병의 경험에서, 음악과 문학을 넘나들던 그답게 '표제음악'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표방한 1830년의 '환상교향곡'(Op.14)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였다. 전체 5악장의 각 악장마다 작곡가 스스로 상정한 주제와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내레이터(성악가)에 의해 불려지지 않고 순수한 기악만으로 표현된 '고정 상념(ideé fixe)'이라는 하나의 주제가 사용된다. 각 악장마다 사랑하는 여인(자신이 그렇게나 짝사랑한 스미드슨)을 주인공으로 표현하는 '고정 상념'이 5악장 전체에 변화된 리듬이나 악기로 끊임없이 연인의 외적·내적 상황을 묘사한다. 여기서 베를리오즈가 개별 악기들의 개성 있는 음색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표현력을 넓히며 보여준 기막힌 관현악법은 프랑스를 넘어 전 세계 음악계에 충격을 주면서 새로운 천재의 탄생을 알렸다. 특히, 마녀들의 축제를 묘사한 5악장에서는 도입부에 제1바이올린과 제2바이올린이 각각 세 파트로, 비올라는 두 파트로 쌍을 이루면서 보통의 교향곡이라면 5성부의 현악기군(제1·제2바이올린·비올라·첼로·콘트라베이스)이 성부가 무려 10성부로 나누어 훨씬 두터운 음향층을 만들었고, 현악주자들에게 잦은 '트레몰로', '아르페지오'를 주면서 두 줄의 피치카토, 약음기를 낀 '콘 소르디노(con sordino)'와 희귀하게 가끔 사용되던 '콜

레노(col legno)'(활대로 현을 치는 주법)까지 요구하여 해골들이 춤을 추며 뼈가 부딪히는 오싹한 느낌과 함께 한밤중의 스산하고 기괴한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로마대상 수상으로 로마에 유학한 사이 약혼녀가 그를 떠나 플레이엘 악기 제조사 사장 아들과 결혼하자, 베를리오즈는 다시 짝사랑 스미드슨에게 끈질기게 구혼하여 1933년 끝내 결혼을 성사시키기에 이르렀다(리스트가 결혼식 증인으로 참석). 환상교향곡의 환상 주인공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이제 베를리오즈의 명성은 온 유럽에 퍼져나가 당대 전설적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는 마침 새로 구입한 명기 스트라디바리우스 비올라를 위하여 '이탈리아의 해롤드'(Op.16)를 위촉할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바이런의 시에서 영감을 받은 제목을 가진 이 작품은 개성 강한 베를리오즈 특징대로 파가니니가 원하였던 비올라의 초절기교도 없이 거의 교향곡에 가까웠다. 베를리오즈의 첫 환상교향곡에 이어 2번째 교향곡으로 평가되었다. 실망한 파가니니는 작품수령을 거절하였고, 1834년 결국은 다른 연주자에 의해 초연되었다, 그러나 후에 베를린에서 1838년 이 곡을 들은 파가니니는 자신의 오류를 직감하고 베를리오즈에게 선뜻 2만 프랑의 거금을 내놓아 그 작품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베를리오즈는 정작 고국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악동 또는 괴짜 음악가로만 남자, 그는 해외로 눈을 돌려 쇼팽과 리스트 등 당대의 저명 음악가들과도 교류를 시작하였다. 리스트가 주선했던 1842년 독일 연주여행을 통해 멘델스존, 슈만, 바그너와 교류하였다. 그는 프랑스에서 오라토리오 '파우스트의 겁벌'(Op. 24, 1846)이 흥행에 실패하여 파산하자 러시아의 연주 여행으로 그 빚을 해결할 정도로, 이제는 국제적 인사로 명성을 날렸다. 그는 1947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보헤미아를 거쳐 영국까지 갔고, 특히 영국에는 1954년까지 4차례나 더 방문할 정도로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Hector Berlioz: Harold en Italie - Les Nuits d'été
 Les Siècles / François-Xavier Roth, Conductor
 Tabea Zimmermann, Viola
 Stéphane Degout, Baritone
 Release Date: January 18, 2019
 Duration: 01:10:25
 Recording Date: March 2, 2018
 Label: Harmonia Mundi (HMM902634)



그러나 말년에 들어서면서 그의 강한 개성으로 점차 바그너, 리스트 등 주변의 음악가들과도 멀어지고, 따라서 외국 연주여행도 뜸해졌다. 굴루크의 오페라에 감명을 받아 음악가가 되기로 결심하였던 베를리오즈였기에 일찍부터 오페라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흥행에는 실패한 거품하였다. 특히 1860년부터 전력을 기울였던 5시간이 넘는 5막의 오페라 '트로이 사람들 (Les Troyens)'는, 당시 그랜드 오페라의 쇠퇴라는 시대적 조류와 맞물려 무대에 올리지조차 못하였다. 그는 후에 이를 다시 전2막과 후3막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제목으로 올렸지만, 모두 실패하였다. 이 충격으로 그는 이후 작곡을 하지 않았다. 그와 더불어 개인적인 불행도 끊이지 않았다. 1843년 이혼한 해리엇 스미드슨이 1854년 사망하였고, 그 이혼의 단서를 제공하였던 제자 성악가 마리 레치오와 재혼하였으나, 그녀도 1862년 갑자기 사망하였다. 이혼 후 홀로 맡아 키워 이제는 어엿한 선장이 된 아들 루이도 1867년 쿠바에 기착 중 갑자기 병사하는 등 사적인 불행이 끊이지 않았다. 그는 끝내 1868년 65세의 나이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였다. 천재음악가의 불행한 종말이었다. 베를리오즈의 음악은 바그너나 리스트와 같이 일부 전향적인 음악가를 제외하고는 동시대에서는 이해받기 힘들 정도로 시대를 앞서갔다. 베를리오즈 스스로 관현악법에 경도되어 '베토벤의 제자'라고 칭하였으나, 섬세한 그의 악기 사용으로 오히려 가장 프랑스적이라 평가받는다. 음악비평과 음악이론에도 탁월한 업적을 보였다. 그의 저작 '근

대악기법과 관현악’은 유럽을 넘어 멀리 러시아의 림스키 코르사코프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고, 현재까지도 세계 각국어로 번역되어 교과서로 읽히고 있는 고전이 되었다.

이제 그의 비교적 초기작품에 속하는 1837년(34세)의 ‘죽은 자를 위한 대미사(Grand Messe des morts)’ Op.5를 보자. 원래 ‘1830년의 7월 혁명’의 7주기(1837년)를 기념하는 음악을 위촉받은 베를리오즈는, 정작 7주기 공연이 정치적 혼란으로 불발되자, 그해 12월 알제리 전쟁에서 사망한 군사령관의 국장에서 이 곡을 초연하였다. 베를리오즈 그 자신이 7월 혁명에 직접 참여하였던 만큼,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있는 들라크루와의 명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에 보이는 7월 혁명의 참상을 상상하게 만든다. 베를리오즈답게 팀파니만 16대에, 8명씩 짝을 이룬 금관악기(바순 8대, 호른 12대, 튜바 4-6대로 확장)를 동서남북으로 배치한(마치 오늘날의 5.1채널 서라운드 시스템) 4관 편성의 오케스트라(거의 200여명의 주자)에 성악파트에 210명이었다. 이런 대규모 편성을 일종의 허풍으로 비난한 비평가도 있었지만, 반대로 그의 오라토리오 ‘예수의 어린 생애(L’Enfance du Christ)’(1854)에서 들려주는 그토록 소박하게 청아한 음악을 보면, 베를리오즈가 대규모 편성만을 추구했던 음악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들라크루와가 그림에서 프랑스의 반복된 혁명에도 단번에 나은 세상이 오지 않는 혁명의 참상을 감정적으로 표현하여 낭만주의 화풍의 시작을 알렸듯이, 7월 혁명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레퀴엠을 통해 베를리오즈만의 유일무이한 낭만주의를 선보이고 있다. 음악의 경계를 넘어 문학·철학까지 넘나든 천재 베를리오즈는, 나폴레옹의 무덤이 안치된 앵발리드에서의 연주를 생각하여 앵발리드 성당의 천장에서 쏟아지는 빛과 음악의 관계까지 반영하였다. 제 2곡 ‘Dies irae(진노의 날)’에서 ‘Tuba mirum(놀라운 나팔소리)’에 이르면 동서남북의 4쌍의 금관악기와 8쌍의 팀파니가 울려 퍼지는 음향효과는 두

HECTOR BERLIOZ: Requiem / La mort d'Orphée*
 Kenneth Tarver, tenor
 Seattle Symphony Chorale
 Seattle Pro Musica
 Vocalpoint! Seattle
 Seattle Symphony / Ludovic Morlot, conductor
 Release Date: September 14, 2018
 Duration: 01:15:53
 Recording Date: November 9, 2017
 Label: Seattle Symphony Media (SSM 1019)



려움을 주기보다는 앵발리드 천장의 빛과 섞여 마치 무지개를 보여주는 듯하다. 표제음악의 대가 베를리오즈의 레퀴엠은 환상교향곡보다도 더 환상적이다. 레퀴엠의 종교적 환상은 우리를 눈물로 이끈다.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나약한 인간의 삶을 성찰하게 만드는 눈물이다. 그 눈물 속에서 우리의 삶은 한바탕 꿈(‘환상’)에서 영원한 삶으로 지나가는 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한다. 베를리오즈의 레퀴엠과 함께 우리는 성찰하며 통곡해도 좋으리라. 🎧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 예루살렘, 두 번째

심연선 소화테레사, 이스라엘 전문 여행 가이드

“샤나 토바” 이스라엘의 새해는 가을에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유다력(또는 히브리력)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달력을 사용하는데요, 1년 단위는 태양력을 사용하고 월,일은 음력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명절이 매 해 다르듯이 매년 특정일 날짜가 바뀝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매년 명절과 기념일의 날짜를 고시하고 공표하지요. 유다인의 설날은 히브리어로 “로쉬 하 샤나”라고 하고 (השנה ראשונה 로쉬 - 머리, 하 샤나 - 그 해·년) 유다력으로는 7월,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9~10월, 즉 가을이 시작되는 무렵에 찾아옵니다. 이 무렵 이스라엘을 방문하시면 곳곳에 “샤나 토바” (שנה טובה 샤나 - 해·년, 토바 - 좋다) 라는 말과 신년을 기뻐하는 장식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스라엘 땅 한 바퀴를 숲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둘러보았다면, 이번에는 나무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다시 한 바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한 달여 지났지만

이스라엘의 새해 인사 받으시고 좋은 한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엔 구도시의 남쪽-시온산 지역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주차장이 있으니 이곳에 주차를 하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성곽 바깥에 있지만 원래는 성 안에 있어야 할 곳입니다. 현재의 예루살렘 성곽은 16세기 오스만 제국의 술탄 술레이만에 의해 지어진 것이기에 구약, 신약시대의 예루살렘과 현재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갈리칸투(닭이 울었다)라고 불리는 베드로 회개 성당에 먼저 발걸음을 하겠습니다. 이곳은 프랑스의 성모 승천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3층으로 되어있는데, 맨 윗층의 베드로 사도의 배반이 조각되어있는 청동문을 열고 들어가면 모자이크가 매우 아름다운 3층 성당이 눈에 들어옵니다. 왼쪽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베드로 사도가 통곡하

고 있는 이콘이 정 가운데 있는 2층 성당을 만나실수 있습니다. 본당 바닥에는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돌구멍이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잡혀 계셨던 감옥이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 직접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 돌바닥에 앉아서 시편 88편을 읽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날, 그 밤의 목격자가 되는 신비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오면 북쪽으로 낮은 돌계단이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키드론 골짜기로 내려갔던 계단입니다. 2천년 전의 그 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증언해줍니다.

성당을 빠져나와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면 또다른 큰 성당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것이 성모 영면 성당입니다. 성모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영면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당입니다. 터키에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지만,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다는 전승에 따른 것입니다. 이곳은 독일의 베네딕도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1층과





갈리칸투 입구

지하로 되어있는데 지하에 벚나무와 상아로 조각되어있는 영면하신 성모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묵주기도 영광의 신비 4단을 바치곤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느껴보는 성모님의 자취중 하나입니다.

영면 성당 맞은편에는 최후의 만찬을 기념한 경당이 건물 위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을 잘 살펴보면 수도원형태임을 알 수 있는데 원래 이곳이 프란치스코회 관구였다고 합니다.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생기면서 국가 소유로 넘어갔고 경당 입구에 출입을 관리하는 이스라엘 경찰이 보입니다. 건물을 빠져 나오면 골목 앞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철문이 있는데 그곳에 프란치스코회에서 이후



에 매입하여 지은 작은 성당이 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면 수사님 혹은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는데 보통 미사가 있을 때만 개방을 합니다.

시온산의 성지지역을 빠져나와 남쪽 성벽을 따라 쪽 걸어 내려오다 보면 길 오른쪽 아래 쪽으로 작은 내리막 도로가 있고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 발굴현장이 공사판처럼 보입니다. 담장 벽에 하프모양의 조각상이 있는데, 그곳이 **다윗의 도시(City of David)**, 다윗의 예루살렘입니다. 매표소에서 표를 끊는데 다윗 도시 입체영화 관람, 수로 탐방 등 원하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돌무더기 곳곳에



갈리칸투 베드로 회개성당



베드로 회개 기념 성당

발굴을 한 번호표시가 적혀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규모에 놀라게 됩니다. 다윗의 예루살렘이지만 히즈키야 왕의 흔적도 발굴이 되었습니다. 바위를 뚫어 터널을 만들어서 성 바깥의 기혼샘의 물을 안으로 끌어왔는데, 지금도 연중무휴 물이 계속 흐릅니다. 총 533미터의 물길을 직접 걸어 가볼 수 있습니다. 지하수여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느껴지고 겨울에는 비교적 덜 차게 느껴집니다. 제가 처음 걸었을 2000년도 초반에는 바닥이 매끄럽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고생했었는데 지금은 편평하게 바닥공사를 해놓아서 걸어가는데 큰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이기엔 손전등이 필요



다윗도시 입구

합니다. 간혹 이 길을 그냥 어둠인 채로 걸어가고 마지막 지점에서 빛을 맞이하며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해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9장에 나오는 실로암! 이 물길이 끝나는 곳이 바로 그 실로암입니다. 지금은 일부만 발굴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정교회 소유여서 알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로암 못을 떠올려 볼 수 있지요. 히즈키야 왕이 만든 수로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을 만나봅니다.

다윗 도시를 빠져나와 다시 성곽을 따라 언덕길을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문으로 들어가서 담장과 성벽 사이의 비교적 어



성모영면성당



아르메니아 야고보성당

두운 길을 따라가 만나는 이곳은 아르메니아 지역입니다. 이들도 나름(?) 그리스도교인인데 그리스도교인 지역과 구분되는 것이 독특한데요, 그리스도교인 지역은 가톨릭 또는 정교회 팔레스타인 신자의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 이곳은 아르메니아인들이 있기 때문에 구분되었다고 합니다. 최초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국가이고 방주가 머무른 아라랏 산이 있는 아르메니아는 유다인들 역사에 뒤쳐지지 않을 침략, 전쟁, 디아스포라 등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놓지 않고 일찌감치 이스라엘에 수도자들이 자리를 잡고 순례자들을 돌러했다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이곳엔 아르메니아 정교회의 신학교와 성당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야고보 성당**인데요 두 야고보 - 첫 번째 순교자이자 사도요한의 형제 (제배대오의 아들 야고보), 예루살렘의 첫 번째 주교인 야고보(알패오의 아들)-의 유해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야고보 성당은 오후 3시에 사제, 부제, 신학생들이 기도를 하는 시간에 개방하는데, 이때 안에 들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 성당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면 야포문 근처에 **다윗의 망대(Tower of David)**가 있습니다. 헤로데왕의 궁전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현재는 예루살렘 역사 박물관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밤에 사운드

앤 라이트 쇼를 하는데 한번쯤 볼만합니다. 야포문 맞은편 구시가지 골목을 따라 내려가다보면 그리스도교인 지역과 무슬림지역이 나뉘는 골목, 십자가의 길 3차 근처에 오스트리안 호스피스가 있습니다. 이곳도 역시 초인종을 눌러야 문을 열어주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바깥과는 사뭇 다른 공기입니다. 깨끗하고 잘 정돈된 정원과 단정한 복도장식이 이색적입니다. 이곳에서 숙박도 가능하며, 내부에 성당도 있습니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옥상 전망대인데 무덤 성당과 황금돔이 가까이에서 아주 잘 보입니다. 전에는 무료였는데 요즘은 입장료를 내

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보실 만합니다. 로비층에 있는 카페에서 자허 토르테와 아인슈페너를 주문할 수 있는 예루살렘 안의 오스트리아입니다. 이곳의 돌들은 18세기 후반의 열강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구석구석 여기저기 오가는 사람들은 변하지만 그곳에 놓여 반질반질해진 돌들이 속삭이는 시대마다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예루살렘 구도시! 가면 갈수록,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곳이 아닐까요? 그 이야기를 들으러 예루살렘에 함께 발걸음을 하고 싶습니다. 🍷

신앙인의 눈으로 읽는 고전 문학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 - ‘일기’를 쓰는 마음

최대한 신부 의정부 교구 / 대신학교

『어느 시골신부의 일기』의 구성과 주제

1936년 프랑스 아카데미 프랑세스 상을 수상한 가톨릭 작가 조르주 베르나노스의 대표작이자 20세기 가톨릭 문학의 가장 중요한 걸작 중의 하나인 『어느 시골신부의 일기』는 그 외적인 형식을 보면 매우 소박합니다. 좋지 않은 건강과 본당의 여러 구성원들과의 갈등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랑스 시골 본당인 앙브리쿠르의 본당 신부인 한 젊은 사제가 최선을 다해 본당 신자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 노력하고 당시의 물질주의적이고 속물적인 시대상과 구태에 젖어있는 교회의 모습에 맞서 복음의 가치를 스스로 잘 지켜나가기 위한 내적인 투쟁을 하고, 마침내는 병이 악화되어서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소설은 그가 내적인 위안을 위해 일기를 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소설은 전적으로 그의 일기를 통해 드러나는 젊은 신부의 생각, 묵상, 그가 전해주는 사건들, 그가 옮겨 적어 주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들로 전개되는 일기체 형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

고 그가 갑자기 외지에서 병이 악화되어 쓰러졌을 때, 그의 마지막에 함께 했던 그의 옛 동료로서 전직 사제였던 의약품 도매상인 루이 뒤프레티가 젊은 신부가 평소에 존경하고 의지했던 노사제인 토르시의 본당 신부에게 그가 숨을 거둔 때의 정황과 유언에 대해 보고하는 편지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소설은 그러니 불과 삼 개월 정도 간에 걸친 한 젊고 순수한 사제의 고뇌어린 사목일기이자 신앙의 투쟁과 고백의 기록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형식에 소설의 내용 역시,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에 있어 표면적으로는 대단한 의미와 중요성을 찾기 어렵고, 일상적이고 평범하며 단조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별다른 개성과 특색도 없는 상투적인 인물들과 그 인물들이 겪는 유별날 것 없는 인생의 고통, 그들이 짓는 개인적인 과오와 죄, 역사와 세계의 중심에선 멀리 떨어진 이미 시대에 뒤쳐진 전통사회와 교회와 신학에 대한 지루한 논쟁처럼 보이던 내용들이 소설을 읽고 나면 사실은 놀라울 만큼 강력하고 도전적인 영혼



의 드라마를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사건들에서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는 힘은 단순히 사제가 일기에 적고 있는 그를 둘러싼 인물들 사이의 상호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사제를 통해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조금씩 감지하는 은총의 실존에서 옵니다. 사제의 일기는 모든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두고 벌어지는 선과 악, 구원과 절망 사이의 영적 투쟁을 가장 날카롭고 강렬하며 체험하게 되는 자리가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과 위안을 하나 하나 벗어가는 사제의 일기는 독자들을 관념과 지식으로 무장하며 안전하게 거리를 두고 한가하게 고담준론(高談峻論)을 나누는 대상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영적 삶과 영적 죽음의 문제로서의 신앙과 사랑의 모험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 마음을 준 사람들은 이 사제가 외적인 삶과 내면에서 동시에 감수하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각 개인

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감추어 진 지성소에서 영혼이 신과 대면하는, 그래서 자신의 불신과 사랑의 무능, 죄의 상처와 폐허를 대면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화의 길에 함께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작가는 이렇게 드러난 마음의 빈터 위로 마침내 은총의 빛이 쏟아져 내린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사제가 이미 오래전에 사제직을 내던진 옛 동료의 부축 속에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며 마지막으로 “아무려면 어쩐가? 이 모든 것이 은총이니.”라는 말을 남기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소설에서 앙브리쿠르의 젊은 주임사제는 자신의 고뇌를 통해 투명하고 순수한 매개가 되어 인간 영혼과 하느님과의 만남의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을 창조하는 것이 작가의 소망이었다는 것을 베르나노스는 가까운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이 작은 마을이 우리나라의 ‘압축판’이길 원하네. 거기엔 백작이 있고, 부면장이 있고, 잡화상이 있고, 아이들도 있어. 그들 모두를 실제 보는 듯하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 모를뿐더러 서로도 모르는 몇몇 아주 귀한 영혼들이 있다네. 그네들은 자기들도 알지 못한 채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서로 만날걸세.”

‘일기’를 쓰며

이 소설은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베르나노스는 이를 그래도 3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중 1부와 3부는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분량이고, 소설의 대부분은 2부에 속합니다. (번역본 기준으로 400여쪽 되는 전체 본문 중 1부는 30여 쪽 정도이고, 3부는 60쪽이 채 되지 않습니다.) 3부는 젊은 사제의 병세가 돌이킬 수 없게 되어 마침내 옛 동료들 방문했다가 병을 못 이기고 숨을 거두게 되는 생애의 마지막 날들에 쓴 일기와 앞서 언급했다시피 그 동료가 토르시의 본당 신부에게 젊은 사제의 죽음을 알리는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1부는 젊은 신부가 사목지에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 내면적 고통 속에서 일기를 쓰기로 결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부 곳곳에서 우리는 그가 이렇게 일기를 쓰기

시작한 데서 받게 되는 양가적 심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기를 쓰는 젊은 신부의 극도로 자기 자신에 정직하면서도 섬세한 품성을 엿볼 수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하자면 자신의 내면을 자기 자신과 하느님께 온전히 내놓는 것이 하나의 모험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내 일기의 이 첫 몇 장을 읽어 보았으나 아무런 기쁜 마음도 들지 않는다. 일기를 쓰려고 마음먹기까지 꽤나 성찰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별 안도가 되지 않는다.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에게는 성찰이란 너무나 흔히 어떤 알리바이, 특정 의도 속에 자신을 굳히려는 은밀한 방편이 되곤 한다. 이성적으로 따진다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어둠 속에 감춰 놓고 그 속에 쉽게 내버려 두는 일이 되곤 한다. 세상 사람은 자신의 기회를 따져 계산해 본다. 그럴 만하다!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이 가난한 삶의 매 순간에 함께하는 저 엄연한 신의 존재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인 사제들이 자기 운을 따져 본다니 말이나 되는가?”

“나는 일기를 적어 보는 이 일을 앞으로 열두 달 이상은 계속하지 않기로 오늘 아침 마음을 정했다. 다음 해 11월 25일 나는 이

종잇장들을 불에 던져 넣고 잊어버리련다. 아침 미사 후 내렸던 이 결심에 내가 안도한 것도 잠시뿐이었다. (...)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하리라, 그런데 자기 자신을 파악하기 위한 이 첫 시도 초두에 그만 어디서부터 이런 자기 연민, 동정심이 솟구친단 말인가? 영혼의 가닥가닥이 헤벌어지며 울고 싶어지는 이 마음은 웬일인가?”

“(…)일기란 것이 주님과 나 사이의 대화가 되고, 기도의 연장이 되며, 아마 고통스러운 위경련 때문이겠지만 여전히 너무 자주 극복하기 힘들게 느껴지는 기도 생활의 어려움을 에둘러 가는 한 방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일기는 때로는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었던 저 수천수만 가지의 잡다란 일상의 근심이 내 오죽잖은 삶 속에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알알이 드러내 보여 준다.”

“이 일기 적기를 시험 삼아 끝까지, 즉 적어도 몇 주간은 끌고 나가 보는 것이 좋겠다. 머릿속에 스치는 것을 굳이 가려잡지 말고 적도록 해보겠다. 그런 후 이 종이 나부랭이들을 서랍 안에 깊이 넣어 두었다가 좀 시간이 지난 후 머릿속이 안정되면 읽어 보도록 하련다.”

1부는 음악에 비유하자면, 곡 전체의 내용을 암시하는 오페라의 서곡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하겠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위안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닌 지 회의하기도 하는 젊은 신부의 심경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 꽤 길게 이어지는 토르시의 본당 신부님과과의 대화입니다. 여기서 이 노사제가 해주는 이야기들은 젊은 신부에게 큰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도전이기도 하고, 곱씹어 배울 만한 지혜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사제가 주는 애정과 경험에 입각한 현명한 조언들은 이제 더 깊고 근본적으로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서막을 여는 장에서 젊은 사제는 성찰과 토르시의 본당 신부와의 대화를 통해 소설 내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적 투쟁의 두 극점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권태’와 ‘어린이다움’입니다. 이 소설은 어쩌면 시대 내내 무거운 안개처럼 드리워진 권태의 악덕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어린이다움을 찾는 길을 걸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하도록 독자를 초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두 극점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도 놀랄 정도로 생생하게 투영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 호에서 함께 생각해볼 예정입니다. ☪

진료실에서 바라보는 세상이야기

연재를 시작하며: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형중 프란치스코_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교수

서스펜스 영화에나 어울릴 법한 긴박하고도 빠른 대니 엘프먼의 음악과 함께 카메라는 울창한 침엽수로 뒤덮인 산을 넘어 전형적인 미국의 한적한 교외 주택가를 훑으며 지나간다. 자동차, 나무떨감, 전신주, 가로수를 지나 낮은 언덕에 홀로 서있는 주택에 멈춘 카메라.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저택 지붕 뒤쪽으로부터 서서히 기어오르는 커다란 거미, 이윽고 거미를 부여잡는 더 큰 손바닥. 그렁 군. 이 모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형이며, 팀 버튼의 영화 <비틀쥬스, 1988>는 첫 장면부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진실은 아님을 암시한다. 사람에게 귀신을 속이고, 놀라게 하는 반전의 연속. 우리의 시청각은 날 것 그대로의 자극에 시시각각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는 100%의 짝반응일 것 같지만, 실은 경험과 상상을 통한 개개인의 맥락(context) 속에서 구체화시키는 해석 작업을 거친 허상일 뿐이다. 그래서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인 맥락은 무섭다.

태어나면서부터 동굴 입구를 뒤로 한 채 안쪽만 보도록 손발이 묶여버린 죄인은 등 뒤

의 햇불을 통해 앞에 비춰지는 그림자만 보고 살아가게 된다. 그가 보고 듣는 것은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통해 체화되는 상상 속의 유니콘일 뿐이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이 점에서 영화와 닮아있다. 형식적으로는 좌석 뒤쪽의 슬라이드를 통해 앞으로 비춰지는 화면이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시청각 자극이란 점과, 내용적인 면에서는 극영화의 내러티브를 위해 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그럴법한 상상 속 캐릭터의 모습을 투영한다는 점에서 동굴 밖 이데아와 동굴 내부의 현세를 연결시키는 실존적인 동시에 현실을 뛰어넘는 허구의 오브제라고도 할 수 있다. 1911년 카누도는 영화란 기존의 시, 건축, 조각, 회화, 음악, 무용과 분리되는 독자적인 제7의 예술로서 고유한 영역을 지닌다고 말했다. 영화는 그림이나 조각처럼 고유의 물성을 가진 개체가 아닌, 예술품 본연의 아우라로부터 해방된 복제예술의 시각으로 봐야만 한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영화를 상영하는 플랫폼의 변화가 본격화된 현재 시점에

서 영화감상은 더 이상 한 장소에 모여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며 즐기는 집단적 제의(祭儀)의 성격을 유지하지는 못한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미사나 예배 등 모든 종교적 의례를 온라인으로 거행하라는 정부시책과 맞닿아있다. 상황이 이러니 영화는 예술로서 가져야 할 관객이 스스로 묻게 되는 담백함과 여백의 아름다움은 점점 더 사라지고 바보상자처럼 말초적으로 순간 시청률을 따지는 TV처럼 소비되고 있다.

자연철학자 윌리엄 휴얼이 제시한 통섭(統攝, consilience)이란 ‘더불어 넘나들(jumping together)’이란 말로 짧게 정의된다. 즉, 지나친 과학적 방법론 때문에 사물이 미분화, 파편화되어 정작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맥락 밖에서 고유한 존재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서구 과학지상주의를 르네상스적으로 환원하려는 시도라고도 할 수 있다. 빛의 속도로 축적되는 과학적 증거물(의학적 근거)은 수용자를 가학적으로 질식시키고 있으며, 앞만 보면서 좁고 깊은 샘물을 파헤쳐야만 하는 컨벤션 내에서의 임상 의사는 플라



비틀쥬스
Beetle Juice, 1988
판타지 | 미국 | 92분



미션
The Mission, 1986
드라마 | 영국 | 125분



러브스토리
Love Story, 1971
멜로, 로맨스 | 미국 | 99분

톤의 동굴 속 그림자만 보고 사는 죄인의 속명과 다를 게 없다. 전문가는 X축이 아닌 Y축으로의 역량으로 평가받기에 보이는 것만 믿게 마련이다. 이제는 넓이와 깊이를 넘는 Z축으로의 사고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대학 정심장(大學 正心章)편 ‘심부재이 시이 불견 청이불문 식이부지기미(心不在焉 視而不見 聽而不聞 食而不知其味)’란 글이 있다. ‘마음이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는 뜻인데, 이 중 ‘시청과 견문’은 열린 눈으로 보고, 뚫린 귀로 들어야만 세상을 독창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불신이 생기는 것이리라. 이러한 인지적 한계는 크리스토퍼 차브리스가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에서 이미 입증한 바 있다.

모든 예술품에 스타달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전율해야 할 필요성도 없거니와, 또한 비평가의 전문적인 담론에 반드시 자신을 공명시켜야 할 의무 역시 없으리라. 유목민의 삶을 지칭하는 ‘노마디즘’은 텍스트에 의존하던 일방통행적 사고에서 벗어나 영상과 음향으로 이해해야 하는, 시작이 끝이요 끝이 시작이

며 중간은 어떤 방향으로도 전환될 수 있다는 디지털적인 ‘인터메조’의 의미로도 통용된다. 따라서 마음을 열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은 한낱 만물의 변화(物化)에 불과하다는 호접몽(胡蝶夢)의 함의로도 읽힐 수 있다.

유럽이 식민지 영토를 확장하던 18세기 유럽.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남미에서 맞붙는다. 몰살위기에 처한 과라니족 원주민을 지키기 위해 스페인에서 온 가브리엘 신부와 전직 노예상인 멘도자는 각각 다른 방법으로 대항된다. 원주민들이 짐승에서 인간계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가톨릭으로 귀의해야 한다는 조건은 백인들의 시각에 함몰된 편협한 주장일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션, 1986>은 2시간 이상 강요하지 않고 참을성 있게 관객들의 선택을 주시한다. 유려하지만 어느 순간 잔인해진 이구아수 폭포의 정경과 엔니오 모리코네의 은은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배경으로.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응하겠다는 멘도자의 주장에 가브리엘 신부는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하느님이라며 무력이 정당하다면 사랑이 설 자리는 없어질 것이라고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 떠다니는 구

름처럼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자 했던 전직 노예상인은 결국 믿음, 소망, 사랑 중 으뜸은 사랑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축성을 받고 신부가 된다. 미친 듯한 피바람이 지나고 살아남은 알타미라노는 말한다. “신부들은 죽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죽은 자는 나고 산 자는 그들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렇듯 죽은 자의 정신의 산 자의 기억 속에 남기 때문입니다.” 손에 거머질 수 없는, 실존을 넘어선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 몸을 던졌지만 그럼으로써 그들은 영원해졌다.

어느 순간 환자이름이 케이스의 일련번호로 치환되어 영상이나 수술 소견이 개체의 특징을 대변하는 상황에 다다르면, 환자와 보호자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내 관심을 벗어나게 된다. 하지만 병록번호로 PACS(의료영상 저장시스템)에서 찾게 되는 환자에게도 자명종 소리에 ‘10분만 더’를 갈구하고, 카페라테를 즐기며 백화점 할인기간을 놓친 것에 아쉬워하는 그런 소소한 일상의 삶이 있었음은 의사들은 종종 neglect(뇌손상 시 시야장애가 생겨 의당 있어야 할 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체감되는 증상)하게 된다.

새벽 5시 45분 사망한 25세 여자 백혈병 환자가 있다. 그녀는 젊고 아름다웠고 음악을 좋

아했으며 아직 아기도 없는 신혼이었다. 망인에 대해 의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과연 무엇일까? 그녀는 비틀즈와 모차르트를 사랑했고, 주인공 올리버를 사랑했다 <러브스토리, 1971>. 시인 정현종의 방문객 중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를 가만히 곱씹어보면 사람이 떠나는 일 역시 엄청난 일임을 느끼게 된다. 차트에 적혀있고, 영상에 보이는 객관적 자료가 한 환자의 전부는 아닐 텐데 나는 여전히 손바닥으로 눈을 가린 채 인지적 시야장애(neglect)에서 벗어나지 못하고는 변명으로 일관한다. 당장 고쳐야겠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

화합과 일치를 보여준 만남과 순교

윤인복 소화데레사_ 인천가톨릭대학교 그리스도교미술학과(대학원) 교수

교회의 두 기둥인 성 베드로(Petrus, 1세기경)와 성 바오로(Paulus, 1세기경)는 예수님을 위해 타오르는 ‘두 등불’로 초대교회의 지도자이며 순교자로서 교회의 초석이 된다. 베드로는 예수님 생전에 선택된 열두 제자 중의 수제자로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다. 반면, 바오로는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선택된 인물로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다. 대조적인 베드로와 바오로이지만 두 사도의 공통점은 서로 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건설하겠다는 한마음을 가졌고, 하느님께 자신들의 목숨을 마지막까지 제물로 봉헌했다. 하느님께서 베드로와 바오로를 선택하여 교회의 초석이 되게 하셨으며 복음의 전도사로 삼으셨다.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와 관련된 이야기는 많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어 다양한 도상으로 그려졌다. 많은 도상 가운데 두 성인의 순교 장면은 한마음으로 교회의 일치를 위해 같은 날 목숨을 바쳤으나, 순교의 형태가 다르기에 예술가들에게는 흥미로운 부분이었

을지 모른다.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의 순교

이탈리아 후기 고딕 회화의 거장으로 르네상스를 선도한 조토 디 본도네(Giotto di Bondone, 1266/76~1337)는 추기경 스테파네스키의 주문으로 세 폭 제단화를 제작한다. 제단화는 처음에 바티칸의 옛 성 베드로 성당의 제단화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바티칸 박물관 내 회화관에 소장돼 있다. 제단화 앞면 중앙 패널에는 옥좌에 앉은 예수님이, 양쪽 패널에는 각각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의 순교 장면이 묘사돼 있다.

중앙 패널에는 금빛을 배경으로 옥좌에 앉은 예수님이 있고, 그 주위에는 천사들이 둘러서서 경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아래 왼쪽에는 그림의 주문자인 추기경 스테파네스키가 무릎 꿇고 손을 합장하고 있다. 예수님이 앉은 옥좌는 흡사 지붕과 벽을 가진 작은 감실, 또는 닫집을 연상시킨다. 양



조토와 그의 협력자들 | 스테파네스키 제단화(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의 순교-부분) | 1320년경 | 목판에 템페라 | 220×245cm

옆에 늘어선 천사들은 중앙의 예수님과 분리된 공간을 갖게 되어 확실한 3차원적 공간감을 나타낸다. 이러한 구획 분리로 중앙의 예수님을 향하는 천사들의 시선은 모두 예수님을 향하며 경배하고 있는 것이 매우 제의적(祭儀的)이며, 이들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옥좌의 첨두형 위에는 성부 하느님이 지상을 내려 보고 계신다. 왼쪽과 오른쪽 패널에는 두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의 순교 장면으로,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바오로는 참수되었다고 한다. 두 사도가 다른 유형의 사형선고를 받은 이유는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성 바오로는 로마 시민이기에 참수를 당했고, 성 베드로는 외국인이기에 십자가형을 받았다.

왼쪽 패널은 네로 황제의 그리스도교 박해로 인해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모습이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모습의 성 베드로는 전통적인 베드로의 도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죽고자 하지 않고 머리를 아래로 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달라고 간청했다고 한다. 베드로는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요한 21, 15)라는 예수님의 위탁을 받고 교회의 양 떼를 맡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순교자로 생을 마친 것이다. 십자가 아래는 군사들과 슬퍼하는 사람

들이 모여 있고, 그 위로는 천사들에 의해 하늘로 오르는 날개 달린 베드로의 모습이 보인다.

오른쪽 패널은 바오로 사도의 순교 장면이다. 유대인이자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바오로는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긴 검으로 참수형을 당한다. 이런 이유로 긴 검은 바오로 사도의 상징물이 된다. 두 개의 작은 언덕을 배경으로 왼쪽에 머리가 잘려 나간 바오로의 참수 장면이 나타나고 그 주변으로 병사와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이 밀집돼 있다. 바오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였다. 그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 20)라고 한 말대로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고 영광스러운 순교자로서 천상의 공간에 머물게 된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천사들이 날개 달린 바오로를 하늘로 인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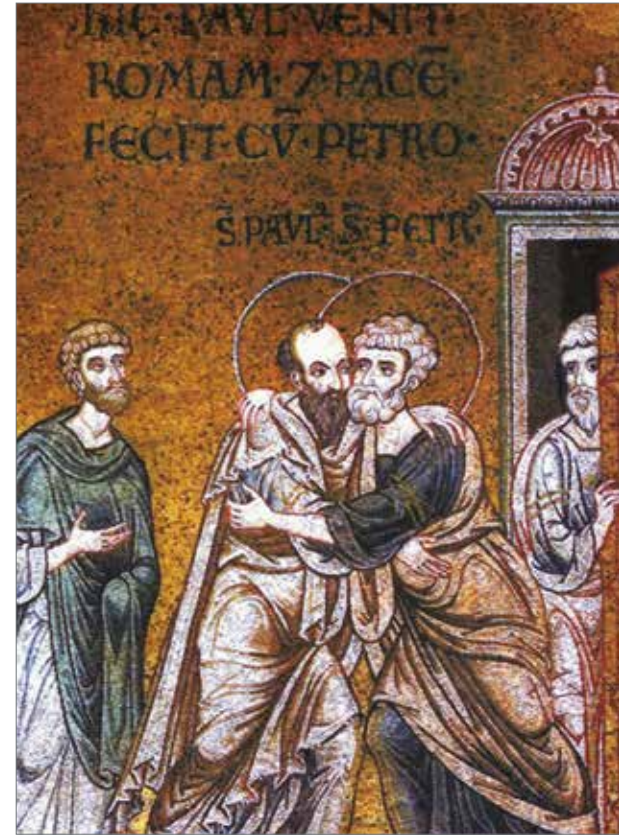
왼쪽 언덕에는 로마에서 공경받는 성녀 플라우틸라(Plautilla)가 하늘을 향해 서 있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사도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고, 사도 바오로의 순교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바오로가 하늘에 오를 때 떨어진 수건을 받으려 한다. 이는 그녀도 바오로처럼 예수님을 위한 삶을 따르겠다는 것을 뜻한다.

화합을 위한 포옹

오래된 전승에 따르면,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는 순교를 당하기 전에 로마의 성 바오로 대성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포옹했다고 전해진다.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의 포옹> 장면은 12세기에 시칠리아의 팔레르모 주에 있는 몬레알레(Monreale) 대성당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생애,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의 생애를 주제로 담은 모자이크 장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베드로와 바오로의 도상은 모자이크 작품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1세기 이후부터 커다란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다. 베드로는 대개 짧은 흰 고수머리에 짧은 흰 수염을 지니고 얼굴에는 주름이 많은 사람으로 묘사된다. 반면 바오로는 가문이 좋고 고급 학문을 배운 상류층 학자 출신답게 귀족적인 용모에 적은 머리수에 길고 검은 수염을 기른 사람으로 묘사된다.

모자이크 바탕에는 “여기, 바오로는 로마에 도착하고 베드로와 평화의 인사를 나눈다.”라는 글이 쓰여 있다.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대표적인 두 인물인 베드로와 바오로가 순교하기 전 최후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 각각의 후광 위에는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비잔틴 미술에서 이름을 표기하는 것은 묘사된 인물들에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의 포옹 | 12세기 | 모자이크 | 몬레알레 대성당 | 시칠리아

게 신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림에서 바오로(왼쪽)와 베드로(오른쪽)가 포옹하고 있는 동작은 매우 강한 인상을 전한다. 둘은 부동켜안고 마치 날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다리는 거의 뛰는 듯하다. 두 사도의 얼굴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빌며 인사를 나누던 방법으로 서로 볼을 맞대고 있다. 베드로와 바오로가 부동켜안은 팔과 어깨의 모양은 하나의 심장 형태를 이룬다. 두 사도의 마음

이 하나로 일치되는 순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마음을 모아” 하느님을 찬미하는 친교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 강렬한 포옹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일치와 화합, 상호사랑의 표현이다.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의 일치와 화합의 포옹은 하느님과의 일치를 위한 순교로 이어진 것이다. ☪

노인사목에 관한 아이디어 및 프로그램 공모전

공모 기간 2021. 10. 17(주일) ~ 12. 12(주일)



응모자격

천주교 신자면 누구나



공모분야

- 제1부문 :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노인사목에 관한 일반적인 아이디어
 -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성당에 오셨을 때
 -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에 계시를 때
- 제2부문 :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본당 노인 대학(시니어 아카데미)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신앙 · 일반교육 프로그램 부문
 - 행사 프로그램 부문

※ 자세한 공모 개요는 노인사목팀 홈페이지에 안내



문의

시흥대교구 사목국 노인사목팀
02-727-2385, 2386



응모요령

- ▶ 제출 서류
공모신청서, 아이디어 및 프로그램 계획서 각 1부
 - ▶ 접수 방법(택 1)
 1. 구글 설문지로 접수(아이디어만)
 2. 공모전 신청서로 접수(아이디어 및 프로그램)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이메일 : isenior@hanmail.net
팩스 : 02-727-2117
우편 : (04537) 서울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 별관 2층 노인사목팀
- ※ 우편의 경우 마감일까지 소인 유효



시상내역 (총 상금 890만 원)

구분	구분	상금
아이디어 부문	다작상 10명	20만 원
	장신상 10명	20만 원
	우수상 10명	20만 원
프로그램 부문	제출한 개인, 팀에게 각 5만 원 지급	
	사랑스 1명(팀)	100만 원
	민중상 2명(팀)	50만 원
	희망상 3명(팀)	30만 원

※ 심사결과 각 시상 기준에 적합한 내용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상 내역은 변경 가능함.



사람은 일생에 걸쳐 생로병사를 경험하지만 농민은 한해 동안에도 무수히 많은 생과 사를 마주합니다. 그래서 농민은 도시민들에 비해 죽음에 대해 더 수용적이고 겸허해진다지요. 농민이 마주하는 밭의 일생은 이른 봄에 씨앗을 부려 새싹이 움트고 풀벌레가 역동하는 여름을 지나,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가을을 끝으로 긴 잠에 들어갑니다. 농한기 입구에서 우리를 마지막 잔치, '김장'으로 연중 먹을거리를 마련하면 땅도 밤상도 숙성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계절스럽게 먹을만큼 맛있다고 해서 계절무라 부른다. 경기도 이천, 여주시 등지에서 주로 재배되어 온 토종작물 계절무는 2014년에 국제슬로푸드 생물다양성재단의 맛의 방추에 등재되었다. 수분 함량이 적어 일반 흰무보다 단단하고 매운맛이 강한 특징이 있다. 줄기가 위로 뻗지 않고 옆으로 퍼진다. 계절무 씨앗은 기름을 내어 익용하기도 한다.

※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인사목팀 홈페이지(www.isenior.or.kr)를 참조 바랍니다.



www.wrn.or.kr



facebook.com/wrn.kr



seoulwurinong





rosary [ˈrō-zə-rē, ˈrōz-rē]

: a string of beads used in counting prayers especially of the Roman Catholic rosary



www.catholicworkers.or.kr

Tel: 02-727-2078, 2080 Fax: 02-753-3792

Mobile: 010-4799-2078, KakaoTalk ID: gikjang

E-mail: gikjang@catholic.or.kr